

에베소서 개요

1. 저자: 사도 바울 (에베소서 1:1; 3:1).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구절들 (에베소서 1:15; 3:2; 4:21)이 있어, 바울이 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에베소의 주위 30 마일까지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의 가르침이 전해졌고, 이들을 바울이 직접 알지는 못했기에 그러한 구절들이 설명이 된다. 또한 에베소서는 두기고가 전달하여서 주위의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 돌려 가며 읽혀진 편지이기에, 개인적인 인사말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쓰여진 시기, 대상: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갇힌 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1; 4:1; 6:20), 이로 보아서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지내던 약 A.D. 62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바울은 같은 시기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적었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금 중에 적은 옥중서신 중의 하나이다.

3. 쓰여진 배경: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쓴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됨, 그리고 교회, 가정, 세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고 있다. 이것은 마술과 점성술에 마음이 빼앗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위 위에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만물의 머리 되심을 설명한다.

*에베소: 에베소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풍요의 여신 아데미 (Artemis)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중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무르면서 사역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내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남겨 두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였다. (디모데전서 1:3)

4. 중요한 주제들:

- 1) 모든 사람은 본성상 영적으로 죽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
- 2)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구속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

-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
- 4)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 구속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현재와 미래에 모든 영광과 권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 5)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 안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되게 하셨다.
- 6)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각, 말, 행동에서 거룩한 새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고, 예전의 죄된 생활 방식을 벗어 버려야 한다.
- 7)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가진 자는 그들에게 순복하는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다.
- 8) 예수님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되어 성숙하여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신다.

5. 구성

1) 그리스도인의 특권: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1:1-14)
- 바울의 감사 기도 (1:15-23)
-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은 구원 (2:1-10)
-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됨과 평화 (2:11-22)
- 복음의 신비 (3:1-13)
- 성령으로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함 (3:14-21)

2) 그리스도인의 책임:

-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 (4:1-16)
- 바울의 권고: 새 사람 (4:17-24)
-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함 (4:25-32)
- 사랑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 (5:1-20)
-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기 (5:21-6:9)
- 온몸을 덮는 하나님의 갑옷 (6:10-20)
- 결언 (6:21-24)